

방산업계, 경쟁체제 흔들리나 ‘입찰제한·사업협력’ 수주 변수

LIG D&A, 24개월 입찰참가제한
한화에어로, 추가수주 가능성 거론
“신뢰 저하, 업계 전반 부담될 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쟁사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제재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자체 사업장 사고 수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참여를 둘러싼 논란도 사업 확대의 변수로 남아 있다.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에 대한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연말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사업의 기체구조·추진기관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에 올랐으며, 체계종합에서는 LIG D&A에 이은 2순위다.

LIG D&A가 계약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화의 체계종합 추가 확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한화는 이번 사업에서 구성품 개발에 더해 유도탄 설계·조립과 구성품 통합, 시험평가까지 역할을 넓힐 수 있다.

KF-21 유도탄을 넘어 국내 신규 수주 전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IG D&A의 입찰 제한이 장기화하면 사업 영역이 겹치는 유도무기 분야에서 한화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LIG D&A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실제 수혜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사업별 계약 절차에 달려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KF-21 통합을 위해 협력해온 KAI와의 관계도 주목된다. 양사는 올해 KF-21FA-50 무장 통합과 수출 공동 마케팅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통합 협력을 강화했다. 한화의 무장 개발 역량과 KAI의 항공기 개발 역량을 연계해 전투기와 무장을 묶은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 협력이 한화의 KAI 경영 참여로 이어지는 데는 제약이 남아 있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AI 경영진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종출 KAI 사장은 국감에서 한

화가 경영권을 확보하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체제와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의 이사회 진입 역시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분 확보를 넘어 경영에 참여하려는 한화로서는 최대주주의 판단과 경쟁 제한 우려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화 자체의 사고 수사도 변수다.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당시 대표 이사였던 손재일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화 역시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어 경쟁사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별개로 사고 후속 대응과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에서는 한화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한화역시 사고 수사를 받고 있어 경쟁사 제재를 수주 기회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 방산기업들은 해외 사업에서 부체계 공급사나 협력사로 함께 참여하는 만큼 비리와 사고에 따른 신뢰도 저하가 K방산 전반의 수주 경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한국수자원공사 이성훈 시화조력관리단 부장(왼쪽부터), 광희진 시화조력관리단장, 오봉근 재생에너지본부장, LG전자 이승기 스마트팩토리솔루션센터장 전무, 윤대식 대외협력담당 전무, 장선욱 스마트팩토리솔루션센터 연구위원이 22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문화관에서 시화호 AI 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사업 외연 확장

한수원과 AI 조력발전소 추진 협약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조력발전소 구축에 나서며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외연을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확대한다. 전자·전장·배터리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자동화·AI 기술을 발전소 운영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기업간거래(B2B) 사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LG전자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문화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호 AI 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디지털트윈과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시화조력발전소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제조 현장에서 검증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에너지 인프라에 적용하는 것이다. LG전자는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발전설비와 폐쇄회로(CC)TV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발전량 예측과 설비

상태 진단, 운영 시나리오 검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활용한 발전소 특화 AI 에이전트 도입도 검토한다. 발전량 손실 원인 분석과 설비 이상 징후 탐지, 예지보전, 점검 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순찰 로봇과 AI CCTV를 활용한 시설 점검 및 위험구역 모니터링, 산업용 로봇을 통한 부품 관리와 자재 운반 자동화도 추진한다.

LG전자가 이번 협력에 나선 것은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적용 범위를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운영 혁신을 지원하는 솔루션 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발전소는 설비 상태와 외부 환경에 대한 실시간 분석,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가 중요한 분야다. LG전자가 보유한 자동화·AI·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만큼 이번 협력은 제조 현장에서 쌓은 기술력을 비제조 산업으로 확장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신형 투싼 사전계약 첫날 1.5만대 ‘흥행’

현대차 편의사양 등 상품성 대폭 개선
하이브리드·최상위 트림 수요 집중

현대자동차의 5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투싼’이 계약 개시 첫날 1만 5000대가 넘는 주문을 확보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전 세대 모델의 첫날 계약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운 가운데 하이브리드와 최상위 트림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상품성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디 올 뉴 투싼이 계약 첫날인 21일 총 1만5045대의 계약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9월 출시된 4세대 투싼의 첫날 계약 실적 1만842대보다 38.8% 증가한 수치로 계약 대수 기준으로 4203대 늘어나며 역대 최다 계약 기록을 새로 썼다.

이번 흥행은 디자인과 공간성 개선에



현대차 5세대 디 올 뉴 투싼. /양성운 기자

더해 안전·편의사양과 디지털 경험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 특히 기본 트림부터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적용하고 상위 트림에는 첨단 기술을 확대해 가격 대비 상품성을 높인 전략이 초기 수요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신형 투싼은 트림별로 최상위 모델인 인스퍼레이션의 선택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 트림인 H-Pick은 33%,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가 22%,

익스클루시브를 기반으로 전용 디자인을 적용한 XRT 트림이 1%를 기록했다. 고급 사양을 선호하는 수요와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하는 수요가 동시에 나타났다.

파워트레인별로는 하이브리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 선택 비중은 55%로 기존 투싼의 48%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기술린 모델을 넘어선 것으로, 연료 효율과 주행 성능을 함께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솔린 모델 역시 최고출력을 13마력 높이고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주행 성능을 개선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 올 뉴 투싼은 강인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성을 바탕으로 기본 트림부터 높은 상품성을 갖춘 매력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퓨처엠, 팔란티어 ‘파운드리·AIP’ 도입

고객사-공급사 협력체계 강화

포스코퓨처엠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생산성과 고객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제조 부문까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포스코퓨처엠은 21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와 데이터 분석 및 AI 플랫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데이터 운영·분석 플랫폼 파운드리(Foundry)와 AI 플랫폼 AIP(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다. 팔란티어는 기업과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해 업무 운영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파운드리 는 데이터 통합·분석을, AIP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AI 에이전트 운용을 지원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마이크론 대만 공장 파업… K-반도체기업 반사이익 가능성

생산차질 현실화시 가격 협상력 영향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 사상 첫 파업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D램 생산거점에서 성과급 갈등으로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22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 외신에 따르

면 마이크론 대만 타오위안 공장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대만 반도체 산업 역사상 첫 사례로, 노사 간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다.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글로벌 D램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메모리 업

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파업이 하루 동안 진행되는 경고성 조치인 데다 HBM 핵심 생산거점인 타이중 공장은 노사 합의에 성공한 만큼 당장 글로벌 메모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하고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 300만명 돌파

삼성전자 서비스 1주년… 기능 추가

삼성전자는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가 출시 1주년을 맞아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는 삼성 월렛에 탑재된 충전식 간편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뒤 두달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확보했고, 이후 1년 만에 300만명까지 늘었다.

삼성전자는 전월 이용 실적이나 적립

한도 없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결제하면서 적립한 포인트를 별도 제한 없이 다음 결제 때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포인트 등급제와 해외 결제 지원 등 신규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